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개인관계의 서사 - 1950년대 후반 '독자사교란' 기획을 중심으로

김연숙*

1. 1950년대와 개인관계의 서사맥락
2. 독자사교의 실태와 변모양상
3. 독자사교의 욕망 - 가족의 재구성과 '누나'의 출현
4. 독자사교와 개인 주체의 형성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대중잡지 『명랑』의 독자사교란을 중심으로 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는 개인관계에 대한 서사를 살펴보았다. 1950년대는 대중잡지에서 개인독자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명랑』이 창간된 1956년부터 1960년 4.19혁명 이전까지 연구범위로 잡고, 독자사교란과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랑』의 독자사교란은 「애독자통신」/「명랑통신」에서 「명랑애독자 쌀롱」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났다. 주요 독자층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다. 독자사교란의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가족 구성 욕망이다. 이는 한국전쟁 때문에 해체된 가족관계를 복구하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회복불가능하다면 혈연을 대신할 대안가족을 찾기도 했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족구성원은 '누나'였다.

독자사교란에서 '누나'를 호명하는 방식이 주조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다음과 같이 설명가능하다. 5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는 연애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연애는 개인주체의 자율적인 욕망이자, 파괴된 국가를 재생하는 국가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주의적 연애가 시대적 중심을 차지했고, 『명랑』의 독자사교란은 ‘누나’라는 호칭을 통해 연애를 간접화시켜버린 것이다. 그 결과 남녀독자의 사연을 게재하는 사교란은, 그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발설하고 공유하면서도 지배이념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은밀한 영역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누나’의 호칭은 독자의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을 재생산하는 한편 그 욕망을 공공의 장에 온전히 기입하고 사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던 것이다.

(주제어: 대중잡지, 1950년대, 『명랑』, 개인관계, 독자사교, 연애, 누나, 개인주체, 연애 욕망)

1. 1950년대와 개인관계의 서사맥락

이 글에서는 대중잡지 『명랑』의 독자사교란을 중심으로 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는 개인관계에 대한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사교란은 대중잡지에서 개인사교를 목적으로 기획된 지면으로 50년대 중후반에 시작되어서 60년대~70년대에 크게 성행한다. 『독자통신』, 『애독자사교실』, 『애독자쌀롱』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획된 독자사교란은 대중잡지가 독자들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 구실을 하는 기획코너이다.

이 글에서 1950년대와 개인관계의 서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대중잡지의 독자사교란은 출판잡지사의 기획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후 사회라는 시대적 분위기의 산물이다. 195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절망·우울의 정조가 깊이 드리워진 한편, 국가건설과 근대화에 대한 사명감이 강하게 작동했다. 또 미국문화의 강렬한 자유로움과 도시 대중문화의 기형적인 활력이 교차되는 복잡다단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개인관계망 즉 지연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마을·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휴전과 분단 이후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다시 찾아나가야만 했다. 전쟁고아, 전쟁과부, 이산가족 등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지에서 새롭게 정착해야했고,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존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망이 요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동춘은 한국전쟁기의 피난이 전쟁 이후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피난은 일회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만성적인 정치사회현상으로 구조화되어 한국사회를 ‘피난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¹⁾ 전쟁발발 직후나 1.4후퇴 등의 시기에 표면화되었던 ‘피난’은 그것이 정치적이었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간에, 국가가 더 이상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개인이 자기 삶을 찾아 떠나게 된 일이다.²⁾ 게다가 지역공동체나 가족이 와해되어버렸으니 개인은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생존과 이익 추구라는 이기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과 현실도피의 부정적인 심성이 팽배해진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자는 재건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후자는 자기성찰과 반성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기근거로부터 뿌리뽑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피난민의 정서는 전쟁 이후 한국인의 집단심성으로 자리잡는

1)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121-122쪽.

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202쪽 참조.

다. ‘피난사회란, 50년대 이후 고립된 개인과 그 개인의 와해된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한편 전후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재건과 이후 계속된 근대화에 대한 추동은, 해방 이후 시작되었던 민주주의와 평등한 개인관계에 대한 욕망을 더욱 부추겼고, 이런 전후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개인관계의 서사가 대중잡지에 표면화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중잡지 『명랑』의 독자사교란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기존 연구자들에 따르면, 1950년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문 저널리즘을 능가하는 잡지의 전성시대다.³⁾ 한국전쟁 중에도 피난지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잡지출판이 활발했으며, 휴전 이후인 1950년대 후반에는 잡지 연쇄전략에 따라 잡지의 분업화·전문화가 촉진된다. 잡지 발행이 활발해지면서 휴전 이후 판매부수가 4000-5000부에서 1만부 정도인 잡지가 수십 종이 출현했고, 5만-6만부 발행하는 잡지도 여럿 나타났다.⁴⁾ 특히 대중잡지는 상업성을 압도적으로 드러내며, 문예지의 제한된 독자층과 달리 지역, 연령, 직업을 초월한 광범한 독자층을 포섭하면서 잡지시장을 주도하게 된다.⁵⁾

이런 배경 속에서 『명랑』은 1956년 1월에 창간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00호 이상 발행되면서 그 영향력을 유지해온 1950년대 잡지는 『사상계』, 『현대문학』, 『여원』, 『학원』, 『신태양』, 『아리랑』, 『실화』, 『명랑』 등이 있는데, 이중 『명랑』은 300호 이상을 발행하면서 1980년대까지 생명을 지속한 경우로 중요하게 평가받아왔다.⁶⁾ 한편 『명랑』을 발행한 신

3)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2012, 175쪽;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400-417쪽.

4)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66-287쪽.

5)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404쪽.

6) 『명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우선 1950년대의 잡지저널리즘 사적맥락에서 『명랑』, 신태양사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이봉범의 논문이 있고(이봉범, 『1950년대 잡지

태양사의 잡지연쇄전략과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대중잡지로서의 『명랑』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봉범의 연구에 따르면⁷⁾ 신태양사는 애초에 오락잡지로 『신태양』(1952)을 창간하나, 잡지 연쇄전략의 일환으로 『실화』(1953.12), 『명랑』(1956.1) 등을 잇달아 발행하기 시작한다. 『실화』는 일요신문류의 구성으로 주로 정계 뒷담화를 신는 남성취향의 잡지였고, “대중흥미잡지”로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비슷한 구성의 『야담과 실화』(1957.1 창간, 야담과 실화사), 『진상』(1957.3 창간, 진문사), 『화제』(1957.9 창간, 삼중당) 등이 연속적으로 발간되면서 치열한 경쟁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이들 잡지는 노골적 선정성(특히 ‘폭로특집’의 상시화)으로 악순환을 겪다가 결국 정·폐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 다행히 『실화』는 압수된 뒤 문제된 부분의 삭제를 조건으로 간신히 재발매된다. 한편 『실화』, 『명랑』의 발간 이후, 오락잡지로 출발했던 『신태양』은 『사상계』를 모방해서 정론잡지로 성격을 바꾸었다. 그 결과 『신태양』은

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397-454쪽;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511-570쪽.) 『명랑』이 대중오락잡지라는 측면에서 소설이나 기사 화보, 유머란, 잡지 기획 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戰後(전후) 사랑의 인식구조 -1950년대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2013, 159-207쪽;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상’과 ‘연애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2012.12, 173-206쪽;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호, 2013, 83-116쪽; 권두현, 「전후(戰後) 미디어 스케이프와 공통감각으로서의 교양·취미오락지 『명랑』에 대한 물질 공간론적 접근」, 『한국문학연구』 44, 2013.6, 7-45쪽; 최애순, 「1950년대 활자매체 『명랑』 스토리의 공유성과 명랑공동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9집, 2013.6, 241-262쪽.). 이들 연구는 주로 성·사랑·쾌락·취미 등의 영역에서 『명랑』이 대중적 감각을 수렴하는 한편, 선도적인 유행풍조를 어떻게 만들어어나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연구의 논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이런 대중적 당대 감각이 어떻게 개인관계의 서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7)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535-539쪽.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사잡지인 『명랑』, 『실화』의 성공으로 적자 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⁸⁾

『신태양』, 『실화』, 『명랑』으로 이어지는 잡지연쇄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년대의 공통적인 사실이지만, 특징적으로 신태양사는 잡지연쇄전략을 확장하면서 각 잡지들의 내적 분업체계를 조정했다. 종합지로서 『신태양』의 망라주의편집은 잡지연쇄를 거치며 실화를 중심으로 한 논픽션은 『실화』로, 오락 및 여성 관련은 『명랑』으로 각각 특화·분화되었던 것이다.⁹⁾ 그 외에도 신태양사는 소설 중심의 문예물은 『소설공원』(1958.12)에, 여대생이 읽기 좋은 가벼운 문예물은 『여성(女像)』(1962.11)에 중점적으로 편집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명랑』은 잡지 자본의 상업성 추구라는 기본 토대에서부터 출발했고, 신태양사 잡지연쇄의 전체 구도 속에서 『실화』와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랑』은 남성적 관점과 틀을 토대로 하되 여성독자까지 목표로 삼아, 상업성과 대중성 뿐만 아니라 계몽성까지 두루 고려했던 것이다. 상업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좀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독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능동적인 전략도 구사해야하지만, 이와 함께 대중의 욕망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술도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명랑』은 보여주기와 받아들이기라는 이중적 기조를 함께

8)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406쪽.

9)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539쪽; 특히 이는 잡지연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개벽사’의 운동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봉범은 지적한다. 개벽사가 일제의 탄압(검열)에 대한 대응책, 정치적·사상적 대중 계몽의 지평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1950년대 신태양잡지자들은 사상성(민족성)으로부터 의도적 분리를 통해 상업주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취한다. 예를 들면, 『명랑』은 당대 대중잡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화보를 게재한다거나 7S편집(Sex, Story, Star, Screen, Sports, Studio, Stage)과 같은 선정적인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독자참여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의견을 수렴해 게재한다는 점을 과시한다. 대중성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는 『명랑』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50년대 후반의 대중문화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명랑』에서 나타나는 독자사교 및 개인관계의 서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대 삶의 감각을 수렴한 집단심성을 재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독자사교의 실태와 변모양상

이 글에서는 『명랑』이 창간된 1956년부터 1960년 4.19혁명 이전까지 연구범위로 잡고, 그 시기 『명랑』에 등장하는 독자사교란과 독자사교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범위를 1960년 초기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4.19혁명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개인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 60년대 이후 서독 광부·간호사 파견, 월남파병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해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은 개인관계 서사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4.19혁명 이전까지의 개인관계 서사를 주목할 것이며, 이후 시기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¹⁰⁾

10) 이 글에서 살펴본 잡지 『명랑』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남아있는 『명랑』을 대상으로 1956. 10 / 1956.11 / 1956.12 / 1957.1 / 1957.2 / 1957.3 / 1958.3 / 1958.4 / 1958.5 / 1958.6 / 1958.7 / 1958.8 / 1959.1 / 1959.2 / 1959.3 / 1959.4 / 1959.5 / 1959.6 / 1959.7 / 1959.8 / 1959.9 / 1959.10 / 1959.11 / 1959.12 / 1960.1. / 1960.2.

현재 『명랑』은 창간호를 비롯한 초기 몇몇 판본이 전해지지 않아, 독자사교란에 대한 기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시대 대중잡지인 『아리랑』(1955년 3월 창간)이 1955년 12월부터 「독자사교실」, 『희망』(1951년 1월 창간)이 1955년 1월부터 「독자통신」이라는 명칭으로 독자사교란을 시작한 사실로 추정컨대, 『명랑』 또한 창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독자사교란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아있는 1956년 10월호부터 『명랑』에 등장하는 독자사교란은 「명랑포스트」, 「애독자통신」/「명랑통신」, 「명랑애독자살롱」이 대표적이다. 이중 「명랑포스트」는 개인사교보다는, 주로 스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명랑』 편집실에 보내는 독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일종의 문답코너이다. 「애독자통신」/「명랑통신」은 초기에는 명칭을 혼용하다가, 이후 「명랑통신」으로 고정화되며 주로 개인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란으로 운영된다.

☆ 명랑통신 - 애독자 여러분 상호간에 통신을 교환하고 싶으신 분은 「명랑통신」란을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자기소개를 본지 「명랑통신계」로 보내십시오.
/ 1. 성명, 2.주소, 3.직업, 4.연령, 5.성별, 6.취미, 7.학력 및 경력, 8.오락, 9.운동, 10.신장, 11.가족사항 기타 (사진을 꼭 보낼 것)¹¹⁾

위와 같이 「명랑통신」은 간략한 투고규정을 제시하고, 지면 게재도 이 투고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해놓고 있다. 이처럼 간략하게 항목화한 까닭으로 평균 30~40명 정도의 독자사연을 두세 쪽 정도에 다단편

/ 1960.3. / 1960.4. 를 살펴보았다.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4.19혁명이 1960년에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 당시 잡지편집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최소 2~3개월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1960년 4월호까지를 4.19혁명 이전 시기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1) 「애독자와 투고규정」, 『명랑』, 1956.10, 70쪽.

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명랑애독자쌀롱』은 개인사교를 원하는 독자의 편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랑애독자쌀롱』은 평균 5명 내외의 독자가 소개된다. 이후 1958년 3월 호에 이르러서는 『명랑통신』이 사라지고 『명랑애독자쌀롱』에서 30~40명의 독자사연이 소개되는 것으로 통합되며, 그에 따라 독자 투고 규정도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명랑통신란은 그간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환영을 받아 동생 혹은 오빠 친구를 새로 만든 분의 즐거운 소식이 수업이 들어옵니다. / 통신교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 성명 이름 외에는 되도록 한글로 쉽게 풀어서 써주십시오. 쓰실 내용은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취미나 전공 같은 것을 쓰시고 어떤 친구 혹은 동생 오빠를 구한다는 것과 직업을 쓰시고 사진을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 곁봉에는 반드시 ‘명랑 쌀롱’이라고 써서 보내주십시오.¹²⁾

『명랑애독자쌀롱』은 위와 같은 투고규정에 따른 게재를 한동안 이어가다가, 1959년 중반쯤부터 내용을 줄이고 사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간략화하면서 일목요연하게 형식화된 편집으로 구성된다. 또 1959년 5월부터는 독자사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명랑』 잡지를 위한 의견을 보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며 투고독자의 이름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게재하는 코너를 편집해놓기도 한다.¹³⁾ 이런 기획들은 모두 잡지사-독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는 방

12) 『통신교환 응모 규정』, 『명랑』, 1958.3, 217쪽.

13) 그 내용은 “★ 감사합니다. 항상 『명랑』을 애껴 읽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특히 『명랑』 잡지를 위한 의견을 보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애독자가 많이 계셨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합니다.” (『명랑』, 1959.5, 29쪽)라고 나와 있으며, 그 명단에는 서울 29명, 경기도 17명, 강원도 19명, 충청도 21명, 전북 16명, 전남 14명, 경북 22명, 경남 21명, 국군 6명, 기타 90명 정도의 많은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이런 명단 나열은 1959년 5월호부터 1959년 9월호까지 나타나고, 1959년 10월호에는 사라진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편집후기에서는 자화자찬 겸 감사 인사
의 글이 자주 실린다.

- (가) 좋은 벗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뜻에서 『명랑통신』란을 설치하였던 바
호를 거듭 할수록 대성황을 이루어 '통신계'로 하여금 그 정리에 기쁜 비명을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 애독자의 끊임없는 성원의 보람이라고 재
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¹⁴⁾
- (나) 연일 몰려오는 독자들의 소식은 언제 보아도 기쁘고 재미로운 새 소식이 많
습니다. 그중에는 애독자들의 통신란을 통해 교우를 맺고 친근한 벗이 된 이
야기, 현상퀴즈의 투고며 『명랑』에 대한 의견 등등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음
은 편집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여간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¹⁵⁾

인용문 (가)는 『명랑』을 매개로 독자 간의 사교가 활발해졌음을 직접
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나)는 독자사교뿐만 아니라 잡지사와 독자의 상
호소통이 원활하다는 데에 대한 자찬 겸 감사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상퀴즈의 투고”는 잡지에서 상금을 걸고 퀴즈를 제시하는 지
면인데, 그동안 독자들이 많이 응모해주서 고맙다고 밝힌다. 이런 특정
란 이외에도 독자들이 잡지사에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제시한다는 사실
을 지면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 내용들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불가능하고 독자 소통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독자들의 투고 건수(이 또한 잡지사의 조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나
투고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호응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자사교란 덕분에 “우리 어머님께서 낳아주시지 않은 누
님을 뜻밖에 얻게 되어 저의 마음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매불
망 저의 소원이 누님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

14) 『명랑통신 교환환영』, 『명랑』, 1957.3, 183쪽.

15) 『편집후기』, 『명랑』, 1957.3, 188쪽.

신 『명랑』 아니 보다 더 훌륭하고 착하신 누님을 저에게 주신 『명랑』을 한없이 찬양¹⁶⁾하고 싶다는 20세 청년의 감사편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독자사교가 잡지를 매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끔 한다.

또 미술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19세의 여학생이 보낸 감사편지는 투고 날짜와 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현실적 신빙성을 더 높인다. 그녀는 1959년 1월호 『명랑애독자살롱』에 사연을 보냈다가 “미술 ‘아마추어’ 여러 옵빠, 언니들이 보내주신 격려의 서신과 ‘스켓취’들을 받아보았고, 그것이 “참으로 저에게 유익한 교양이 되었으며 자신을 북돋아”주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달라는 바람을 적는다.¹⁷⁾ 이뿐 아니라 독자 간의 통신이 활발함을 암시하듯, 최성숙이라는 여성 독자는 자신이 지난 2월호에 사교를 원한다는 사연을 실었는데, 이후 100여 통 이상 편지가 쏟아져서 도저히 회답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미안하다 못해 불안하고 고민스러우니 아예 답장을 보내지 말라며 “차후에는 절대로 헛된 돈의 낭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밝힌다.¹⁸⁾

이와 같은 인기를 반영하는 듯 1958년 5월호 『명랑』의 현상 퀴즈는 독자사교란의 편지 형식을 흉내낸 문제가 출제된다. “벌써 □□도 □□다운 오월. 거리에 □있는 ○○○○○에는 □룩이 피고, 멀리 □□□□속에 묻힌 □줄기에도 빨간 □□□꽃이 □창이구나. 이럴수록 나는 너를 □□싶은 □□뿐. 가슴이 □□하여 못견디겠구나. 5월 3일 옵빠 형민¹⁹⁾”라는 식으로 위 내용의 빈 칸을 채워 넣으라는 퀴즈다. 정답은 두 달 뒤인 7월호(91쪽)에 실리는데 “벌써 계절도 아름다운 오월. 거리에 서

16) 『명랑애독자살롱』, 『명랑』, 1956.11, 88쪽.

17) 『명랑애독자살롱』, 『명랑』, 1959.3, 298쪽.

18) 『명랑』, 1958.5, 223쪽.

19) 『명랑 현상퀴즈 문제』, 『명랑』, 1958.5, 81쪽.

있는 푸라타나스에는 신록이 피고 멀리 아지랑이 속에 묻힌 산줄기에는 빨간 진달래꽃이 한창이구나. 이럴수록 나는 너를 보고 싶은 생각뿐. 가슴이 설레여 못 견디겠구나. 5월 3일 오빠 형민”으로 나와 있다. 계절에 대한 감상과 보고 싶다는 사연은 여타의 독자사연들과 비교해볼 때 더 특별할 것도 없고 감정적인 수사도 별로 없는 평범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가 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것 즉 ‘독자사교’라는 개인관계 맺기가 대중의 흥미를 끄는 요인이며, 바로 이 때문에 퀴즈문제로까지 이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1956년 후반부터 1960년 초반까지의 『명랑』 독자사교란에 등장하는 독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아래 도표 참조). 우선 독자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후반(17, 18, 19세)부터 20대 초반이 가장 많고, 20대 후반(26, 27, 28세)도 꽤 있으나, 30대는 1958년 7월호에 37세 남성, 1960년 1월호에 35세 남성 2명뿐 거의 없다. 이들 중 남자가 9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며 대학생, 군인, 무직(가사 포함), 회사원, 공무원 및 기타 다양한 직업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들의 거주지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 인근이 가장 많지만, 외딴 섬이나 산간벽지는 물론 결핵 요양소 등의 병원까지 다양하다. 이 시기(1960년 4월)까지는 아직 해외에서 온 사연은 없다. 예외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중국인(화교인 듯한)이나²⁰⁾ 재일(在日)한국고아의 실상을 알리니 도움을 바란다는 재일교포의 소식²¹⁾이 소개되고 있다.

20) 장지전이라고 이름을 밝힌 21세의 중국인은 “한국인의 많은 벗”을 원한다면, 현재 “이역땅에서 비록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런 향수에 젖음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내 고향과 다름없는 서울에서 좀더 많은 벗과 사귀어 보고싶은 마음만이 가슴 속에 가득 찼습니다. 취미는 운동인데 그중 농구와 배구를 더 좋아하며 탐정소설을 아주 읽기 좋아합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명랑에독자살롱』, 『명랑』, 1958.5, 224쪽)

21) “고국에 계신 동포에게”라는 제목으로 “사회사업에 뜻을 두신 분의 답서”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사교를 원하는 대상을 보면 “남녀 불문코” 우정을 나눌 벗이 절대다수이다. 그리고 가족구성원(부모, 형·누나·오빠·동생), 애인, 특징인 순으로 이어진다. 특징인은 대체로 헤어진 친구, 가족, 지인을 찾는 경우로 대상자의 이름, 지역 정보 등을 나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특징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교를 원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은 명백히 표면적인 언설일 뿐 각각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고, 구별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명랑하고 쾌활한 벗을 사귀고자 하며 특히 누님이나 누이 동생을 삼고 싶습니다”(5610), “누님·동생 또는 애인이 되어 주실 분”(5806), “저를 귀엽게 사랑해주실 누님 동생이며 걸 프렌드”(5901)를 원한다는 사연을 보면 친구와 가족, 이성 중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범주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즉 누나 같은 애인/동생같은 애인을 원하거나, 누나와 동생뻘의 친구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1959년 중반 이후가 되면 『명랑애독자살롱』의 내용서술이 간략해진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한 서술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가 많아지고, 이 때문에 사교를 원하는 대상은 더욱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저 많은 서신연락을 바란다는 투의 언급이 가장 많으며, 조금 더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고 침착한 분”(5908), “저를 위로하여 주실 분”(5909), “저와 뜻이 같은 분으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분”(5909), “쌀쌀한 현실을 극복해나가는데 힘이 되어 주실 분”(6001)처럼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다.²²⁾

고아원 ‘애신애린샤’의 “주임지도원 신정영길, 주관자 장덕출, 주임지도원 신정영길, 주임보모 김순진, 지도원 금산수용, 지도원 삼청, 보모 저일암, 보모 삼기꾸 아동 일 등”의 글이다. (『명랑애독자살롱』, 『명랑』, 1958.7, 228쪽)

22) 이처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대상에 대한 불분명한 지칭과 모호한 표현이 빈번한

* 1956년 10월호 ~ 1960년 4월호 독자사교란 통계²⁷⁾

권호	투고 인원		우정 (동성: 여자) ²³⁾	누님 (오빠) ²⁴⁾	가족 ²⁵⁾	이성 ²⁶⁾	특정인
	남자	여자					
5610	32	7	24 (2)	6	1	3	4
5611	37	4	30	6	5	2	3
5612	29	1	16	8	6		
5703	38	6	28 (1)	11	2	1	1
5803	28	5	9	18	5	5	
5805	29	7	24 (1)	14 (1)	3	2	
5806	27	5	17	17 (3)	3	4	
5807	27	2	13	17 (1)	3	1	
5808	25	8	18 (1)	12 (1)	2	5	
5901	36	5	15	24	4	2	
5902	21	4	10 (1)	15 (2)	5	2	
5903	15	8	11 (1)	10	3	2	
5905	17	3	8	12	1	2	
5906	18	2	13 (1)	11 (1)	1		
5907	16	3	10 (1)	10 (1)	1	3	
5908	16	7	11 (2)	13	5	1	
5909	22	1	13 (1)	14	6		
5910	29	1	15	17	6		
5911	26	5	17 (2)	17	6	2	
5912	25	3	17	19	5	2	
6001	22	6	11	19	4	1	1
6004	14	10	10 (2)	10 (4)	1	1	1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내용분석에서 논의할 것이다.

- 23) 대체로 '우정'은 '남녀 불문/남녀를 가리지 않고/누구든지'는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유독 '남자 불가', '반드시 언니'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는 "동성(여자)"로 분류했다.
- 24) '누님'에는 '의남매, 의매, 누이, 여동생' 등을 모두 포함시켰고, 여성 독자가 원하는 '오빠'는 괄호 안의 집계로 나타냈다.
- 25) '가족'은 '어머님이 되어주실 분', '형제 자매가 되어주실 분' 등 '누님'이라는 특정 표현이 없이 여러 가족구성원을 지칭할 때를 집계했다.
- 26) '이성'은 "여성"(남성독자)을 원한다는 경우, "결 프렌드", "보이 프렌드", "반려자", "플라토닉 러브" 상대자를 구한다는 등의 표현을 두루 포함했다.
- 27)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 호 중 독자사교란이 없거나(5701), 해당 페이지가 유실되어 있어 독자사교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804, 6002, 6004)는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투고 독자의 수보다 각 항목별로 집계된 숫자가 더 많은 이유는 독자

3. 독자사교의 욕망 - 가족의 재구성과 ‘누나’의 출현

‘사교’라는 개인관계는 대칭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²⁸⁾ 이때 ‘평등’이란 실제와는 무관하게 서로가 그러하다고 믿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사교’의 본질은 ‘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⁹⁾ ‘사교’의 이런 본질을 감안한다면 독자사교란에서 ‘친구/애인’에 대한 욕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쉽게 이해가능하다.

그런데 50년대 후반 『명랑』의 독자사교란에서 특이한 것은 가족 구성 욕망이다. 가족 구성은 평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족으로 포함되는 비대칭적 관계범주다. 가족구성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전쟁이다. 전쟁은 가족을 붕괴시켰으며 민족의 대이동으로 불리는, 엄청난 인구학적 변동을 야기했다. 따라서 현실 공간은 물론이고 가상공간인 독자사교란에서도 헤어진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 사연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변 전 안산국민학교 제9회 졸업생들은 꼭 편지”(5610)해달라, “6.25 사변 후 제일차 남하 직전에 헤어진 유일무이한 친우 국방경비대 4연대 출신인 당시 19연대 조순봉군”(5610)을 찾는다는 사연 등등은 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예전 관계를 복구하고자하는 욕망이 일차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불가능하다면 그다음로는 원가족을 대신할 대안가족을 만들고자 한다.

들이 사교를 원하는 대상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친구나 누님을 원합니다’, ‘벗이나 어머니가 있으시면’ 등과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 각각 따로 집계했다.

28) 박성환, 『근대 사회의 분화와 ‘사교’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 사회』 13, 2012, 195-222쪽.

29) 박성환, 『근대 사회의 분화와 ‘사교’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 사회』 13, 2012, 211-212쪽.

- (가) 당년 21세의 여군입니다. 6.25사변 당시 홀로 남하하여 방황하던 중 (중략) 지금은 **복讎하늘 밑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외로움에 몸부림칠 뿐**입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명랑하고 순진한 언니, 오빠 동생을 사귀고 싶습니다. 군 부대(의무대)주소 강명숙 (『명랑』 5803, 217쪽)
- (나) 저의 고향은 평북 신의주입니다. **1.4 후퇴 당시 부모형제를 여의고 홀로 월남**하여 군에 입대했습니다. 연령 25세. 부모형제를 잃고 보니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이 외로운 몸인 것같고 고적하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머님 또는 형제의 인연을 맺어 주실 분은 친부모 형제 다름없이 섬기겠사오니 연락 해주십시오. OO부대 하사관 학교 본부 하사 염재석 (『명랑』 5804, 227쪽)
- (다) **저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당년 27세이오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없는 독신인지라 외로움이야말로 어디 비길 데가 없습니다.** 명랑한 가정이 그리워 진정한 부모자매가 되어 주실 분은 안계신지요. 제 9158부대 본중수송부 한봉현 (『명랑』 5808, 224쪽) (강조-인용자)

위 사연을 보낸 독자들은 혈연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헤어진 상태다. 이산가족이 북한에 생존해있을 수도 있지만, 분단상황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나'의 가족관계를 복원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님, 동생 등 다양한 대안가족을 원하며, 그들을 통해 현재의 부정성을 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후로도 “1.4 후퇴에 남하로 고독”하니 “누님이나 여동생”을 원한다는 “25세의 미혼청년(6003), “6.25사변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의탁하고 있는 외롭고 가련한 소녀”는 “피아노 콩쿨” 참가도 했지만, “너무나 불우”(6004)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등등의 사연들은 계속 이어진다.

전쟁 후라는 시대배경을 감안할 때 가족재구성에 대한 욕망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특이한 것은 가족 중에서도 '누나'가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제시한 독자사교란의 집계를 살펴보면, 부모/형제/자매를 맺기보다 '누나(누님, 의남매, 의매, 여동생 포함)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물론 그 사연의 독자들은 남성이다. '오빠(남동생 포함)를

호명하는 여성은 1956년 후반부터 1960년 초반까지 통틀어 14명에 불과하다. 또 ‘여동생’, ‘의남매’, ‘의매’, ‘누이’ 등 남매관계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는 “누님”을 간절하게 부른다.

그렇다면 『명랑』의 독자사교란이 ‘누나’를 호출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자. 이들 중에는 그저 단순히 ‘누나’를 원한다는 간략한 사연도 있지만³⁰⁾ 그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누나’가 없기 때문이라는 나름의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더 많다.

- (가) 올해 19세의 청년입니다. 봄은 정년 청춘의 계절인가 봅니다. 벌써 들과 산에는 연록색의 고운 색이 덮이고 남녀들은 고궁과 유원지를 찾는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누님이 없이 자라나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저의 진정한 누님이 되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경기도 양주 원종도 (『명랑』 5805, 224쪽)
- (나) 당년 19세의 고교생입니다. 짝없는 기러기와 같이 외로운 몸입니다. (중략) 고교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철부지 국민학교 학생같습니다. 마음이 어릴 뿐더러 세속에 몰들지 않았다는데서 순진하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언제나 누님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으니 진실한 누님이 되어 주실 분은(하략) 서울 남용환 (『명랑』 5807, 228쪽)
- (다) 단란한 가정의 장남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의 청년입니다. (중략) 현재는 무직으로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어 독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님이 없어 고독하게 자라나** 항상 마음 한쪽의 공허감을 금치 못합니다. 저의 진정한 누님이 되어 주실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산 임갑현 (『명랑』 5807, 228쪽)
- (라) 당년 18세의 학생입니다. **누님없이 자란지라 누님의 사랑을 무척 그리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친구의 누님을 저의 누님과 다름없이 존경하는 가운데 대해 왔습니다. 혹 누님이 되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

30) 예를 들면 “저의 힘이 되어주실 누님 한 분이 지금 어느 하늘밧에 계신지요?”(5611)라거나 “저는 항상 고독합니다. 이런 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진실하고 참된 누님을 사귀고 싶습니다.”(5804)라거나 “언제나 선량한 누님을 맺어 사랑을 받고 싶음이 염원”(5611) 등이 그러하다.

겠습니까. 전남 나주 진학순

(『명랑』 5808 224-225쪽)

(강조 - 인용자)

지금 나에게 ‘누나’가 없기 때문에 ‘누나’가 필요하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이들 메시지는 누나 부재의 현실이 허전하고, 한탄스럽고, 고독하다는 수사적 표현과 연결되면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형식상 논리일 뿐, 없기 때문에 있어야한다는 인과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명한 과학법칙인양 “특별히 누님 없는 저로서는 누님과 남매를 맺기를”(5808) 원하고 “누님 없이 자란 몸이라 진실한 누님”(5901)을 찾는다는 언술들이 50년대 『명랑』 독자사교란의 주조를 이룬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 독자들은 자신의 누나 부재가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강조한다.

“21세의 미혼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독자는 “원래 누님과 여동생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장남”(5808)으로 태어났음을 밝히며, 19세의 남자 고등학생은 “2남으로 태어나 누님과 동생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독한 사람”(5901)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심지어 대사업가가 꿈이라는 23세의 상과 전공 대학생은 “7형제를 갖인 저는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5906)어서 외롭다면서 ‘누나’가 되어주실 분을 애타게 찾는다. 장남이니까, 2남이니까, 남자형제밖에 없어서 ‘누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7형제나 되는 대가족인데도 단지 누나가 없다는 것때문에 고독하고 외롭다는 자기설명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우스꽝스럽다 못해 기괴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사교란에서 ‘누나’는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호명되고 있는 반면 애인을 구하는 경우는 친구/가족(누나 포함)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친구/가족을 원하는 경우가 대체로 매년 10~20명 내외

의 두 자리 건수라면, 애인은 5명을 채 넘지 못한다. 또 앞서 독자사교란을 분석한 도표를 설명하면서 개별 항목 구별은 해당 단어의 유무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대상에 대해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줄 단서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명랑』 1958년 5월호는 상금 3만원의 현상퀴즈의 빈 칸을 채우는 문제를 독자사교란의 형식을 빌려 제시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의 독자사교란의 인기를 증명해주는 것이자 잡지사의 홍보전략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퀴즈-정답보다도 주최측이 퀴즈를 제시하면서 함께 제공한 ‘힌트’는 독자사교실의 성격에 대해 그야말로 적절한 힌트가 되어준다.

형민과 소화는 『명랑』 잡지 『애독자 쌀롱』을 통해 맺은 의남매다. (중략) 그들은 서로 글과 사진을 교환하는 동안 서로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 이상으로 다정해졌다. **서로 글을 교환할 적마다 ‘오빠’와 ‘동생’으로 그 서두를 시작했고, 서로 만나고 싶으면서도 시간과 거리 관계로 아직 못 만나고 미루고만 있는 것이다.** 그러저럭 하다보니 이제 벌써 오월이 되어 버렸다. 거리에 서있는 가로수에도 잎이 피고 둘러싼 산에도 온갖 꽃들이 만발을 했다. **이럴수록 형민과 소화는 서로 만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더 참을 수밖에 없다. 왜냐고? 비록 의남매라고는 하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건 순수한 애정이란 갑자기 불이 붙다가는 일진의 잿가루로 희진하기 쉽기 때문이다.** (강조-인용자)³¹⁾

이 ‘힌트’의 내용은 실상 퀴즈정답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감정이 변화발전해서 애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상의 내용이 실제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면서 ‘의남매(오빠-여동생)’와 ‘애인’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변화과정이 흥미

31) 『명랑 현상퀴즈 문제』, 『명랑』, 1958.5, 81쪽.

진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과정이 현상퀴즈를 접하는 불특정다수의 독자들에게 힌트로 제시될 만큼 보편적이라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퀴즈 힌트란, 불특정다수의 독자가 그 힌트내용을 예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나 다 이해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이런 퀴즈와 퀴즈힌트는 당시 현실에서 의남매(오빠·여동생)와 애인의 범주가 동일시되는 경우가 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의남매/애인이 동일시되는 일은 독자상담코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3세의 청년은 1년 전 만난 20세 여자와 의남매로 교제하던 중 고민이 생겼다고 상담을 요청한다.³²⁾ 이 사연의 소재명은 “의남매가 사랑으로”이다. 사연을 보낸 남성은 상대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혼했으나, 여성은 “오빠는 두어도 아직 애인은 둘 수 없다”며 “이성을 느낄 때까지는 그대로 의남매로 지내자”고 한다. 그러나 남성은 사랑의 감정을 참기 어려우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명랑』에 묻는다. “형민”과 “소화”를 내세운 현상퀴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상담의 주인공이 의남매에서 애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다. 심지어 “이성을 느낄 때까지는 그대로 의남매로 지내자”는 대목에 이르면, ‘의남매→애인’은 시간문제일 뿐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여겨진다.

독자고민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의남매에서 애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전문가는 “당신(고민상담 남성·인용자)의 장래는 장미꽃 빛깔로 빛난다”, “당신은 지금 순탄한 사랑의 길을 걷는다”, “고민의 호소라기보다 행복의 자랑처럼 여겨진다”면서 그들의 이성관계를 순순히 인정한다. 다만 연애평정에서 남자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교제를 할 것을 훈계할 뿐이다.³³⁾

32) 『고민하는 인생십자로』, 『명랑』, 1958.8, 216쪽.

결국 오빠-여동생이란 의남매는, 현실적인 관계 즉 남성과 연하의 여성이 맺어지는 연애관계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혹 그들이 아직 현실상황에서 만나지 못했거나, 오빠-여동생관계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전(前)단계일 뿐이다. 이에 비해 '누나'는 현실의 애인관계보다 가족을 연상시킨다. 이후 '누나'를 원하는 욕망이 친밀한 개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해나가더라도, 일단 기표상으로는 연애 전단계인 오빠-여동생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범주였던 셈이다. 그래서 '누나'는 연애와는 다른 이성관계 즉 안전하고 건전한 이성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 여겨졌다.

『명랑』의 독자사교란에서 원하는 대상에 대해 불명료한 표현과 모호한 구별이 빈번했던 것도, 애인관계로의 변화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면서도 감추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애인관계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진짜 '누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다른 장치가 필요했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 3형제 중 막내둥이입니다. 올해 33세의 군인이며 취미는 운동입니다. 독자들끼리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격려와 아울러 뜻을 교환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을 구합니다. 특히 **누님이 되어주실 독자**가 계시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삼겠으며 **동성동본 경주 이씨는 없으신지요** 꼭 서신해주시시오. 제6566부대 현병중대 이보국 (『명랑』 5807, 228쪽)(강조-인용자)

33) 지금까지 산책이나 영화구경 등등으로 깨끗한 교제를 계속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참지 못하겠노라고도 말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말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꼬집어 밝힌다면 마음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탐탁지 못하니 어서 바빠 몸까지 소유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벌써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조금 허 서두르지 말고 꽃봉오리같은 사랑을 모락모락 키워가십시오. 그러노라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는 인생십자로』, 『명랑』, 1958.8, 217쪽.)

위 인용문에서 ‘누나’를 찾는 군인은 특이하게도 “동성동본”이라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는 역으로 대부분의 사교에서 ‘누나’라는 대상은 가족보다는 애인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33세의 군인은 “동성동본”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족으로서의 ‘누나’를 원한다는 진심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독자사교란은 서술형식으로 투고된 경우에도 대여섯 줄에 불과한 분량이어서 독자들이 원하는 가족관계나 애인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나가 가족/애인의 범주에 걸쳐져 있으며, 누님의 정은 실상 애정(연애)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자사교란은 단호하게 ‘누나’를 지목하고, 나름대로의 이유 없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까지 내세우며 끊임없이 ‘누나’를 호명한다. 이처럼 독자사교란에서 ‘누나’ 호명방식이 주조를 이룬 것은 1950년대 연애를 대하는 양가적인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50년대 대중잡지의 연애담론을 분석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 전쟁 이후 연애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애의 대중화이다.³⁴⁾ 1920년대 후반 식민지시기 ‘자유연애론’을 중심으로 연애·성담론이 성행하지만 그것은 소수 지식인의 범주에서만 통용가능했다.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인 50년대 후반에 연애는 담론상으로는

34)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2013, 159-207쪽;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2012, 173-206쪽;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호, 2013, 83-116쪽; 권두현, 『전후 미디어 스퀘이프와 공통감각으로서의 교양 취미오락지 『명랑』에 대한 물질 공간론적 접근』, 『한국문학연구』 44, 2013, 7-45쪽;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 2011, 335-387쪽 참조.

물론 현실에서도 대중화되는 단계에 이른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 소설, 유머, 만화, 화보 등 잡지에 실린 게재물의 대부분은 연애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 특히 『명랑』은 통속적이고도 선정적인 연애를 다루는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 『명랑』은 창간 당시부터 ‘2천만의 오락잡지’를 표방하고, 75편집을 내세우면서 통속적인 대중 욕망을 노골적으로 명시한다.³⁵⁾ 이를 두고 기존 연구자들은 “연애민주주의의 도래”라고까지 지칭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자유감의 활력과 도취가 『명랑』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한다.³⁶⁾

한편 1950년대 연애론은 인습적 결혼풍속을 혁신하면서 ‘연애’라는 자발적 결속을 통해 돈독한 가정을 건설하는 것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연애는 파괴된 국가를 재생하는 국가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역설된 것이다.³⁷⁾ 이 국가적인 기획 속에서 연애는 건전한 연애, 섹슈얼을 제거한 연애, 물욕과 성욕을 배제한 극도의 정신주의적 연애여야 한다고 강조된다. 심지어 『여원』, 『주부생활』 등 당대 여성담론을 주도하던 잡지들은 사치스런 미국식 향락주의 문화의 경박함을 비판하고, 가족과 굳건히 결속시키는 혼인중심주의적 연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정한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일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인격적 성숙과 정신적 도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35) 『명랑』 1956년 11월호 편집후기에서 편집장 서상덕은 “명랑이 표방하는 ‘썸 · S’의 편집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Sex, Story, Star, Screen, Sports, Studio, Stage……(徐)”라고 『명랑』의 편집전략을 설명한다. (『편집후기』, 『명랑』, 1956.11, 184쪽)

36)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2012, 185쪽.

37)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2013, 166-167쪽.

38)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12, 387-416쪽;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권보드레 외, 『아프레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255-286쪽 참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극도의 정신주의적 연애론이 강조되었던 50년대 후반의 정조는 『명랑』으로 하여금 잡지 전반에서 연애욕망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드러내게 만든다. 예를 들면 소설이라는 허구적 장치나 유머라는 풍자·조롱을 통해 지배이념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제한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험과 욕망을 발설하고 공유하는 은밀한 쾌락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이다.³⁹⁾ 이런 양가적인 혹은 이율배반적인 특성과 편집방식은 『명랑』뿐 아니라 신태양사 발행 잡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했다.⁴⁰⁾

『명랑』의 독자사교란 또한 위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양가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독자사교는 ‘사교’의 본질상 연애가 중심이었지만, 정신주의적 연애가 강조되는 시대 분위기는 ‘누나’라는 호칭을 통해 연애를 간접화시켜버렸던 것이다. ‘누나’는 개인의 연애욕망을 관리하고 순화하는 상징적 장치로 이용된 셈이다. 그 결과 남녀독자의 사연을 게재하는 사교란은, 그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발설하고 공유하면서도 지배이념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은밀한 영역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누나’의 호출은 독자의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을 재생산하는 한편 그 욕망을 공공의 장에 온전히 기입하고 사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각 광받을 수밖에 없었다.

39)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2012, 201쪽;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 30호, 2013, 107-109쪽 참조.

40)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534쪽.

4. 독자사교와 개인 주체의 형성

1950년대에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주체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과 한국전쟁 이후 ‘피난사회’의 고독한 개인이 사교적 관계를 추구하는 욕망이 폭발적으로 드러난다. 이 때문에 대중잡지 『명랑』은 독자들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 구실을 하는 기획코너인 독자사교란을 마련한다. 그래서 독자들은 잡지를 매개로 개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부터 자율적 주체의 사교, 가상의 평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할 수 있었다. 특히 『명랑』에서 실리는 독자 사연들은 익명의 관계, 불특정 개인과의 관계맺음을 전제로 엿보기와 자기과시의 맥락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 맥락에서 맺어지는 개인관계는 자유로운 개인주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관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징표로 여겨졌다.

『명랑』의 독자사교란에서 특이한 것은 가족 구성 욕망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때문에 해체된 가족관계를 복구하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회복불가능하다면 혈연을 대신할 대안가족을 찾아나섰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족구성원은 ‘누나’였다. 독자사교란에서 ‘누나’를 호명하는 방식이 주조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50년대의 연애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와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었다. 50년대의 연애는 개인주체의 자율적인 욕망으로 강조되면서도, 정신주의적인 연애가 시대적 중심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명랑』의 독자사교란은 ‘누나’라는 호칭을 통해 연애를 간접화시켜버리는 방식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남녀독자의 사연을 게재하는 사교란은, 그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발설하고 공유하면서도 지배이념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은밀한 영역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누나’의 호출은 독자의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을 재생산하는 한편 그 욕망을 공공의 장에 온전히 기입하고 사회화할 수 있는 안전장

치었던 것이다.

독자사교의 방식에서 간접화된 방식으로나마 연애욕망을 두드러졌던 것은 그것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대 개인 주체의 표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공포, 그리고 전후 재건을 위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추구는 구성원 개개인을 극도의 혼란과 소외를 느끼게 만들었으며, 너나없이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느끼게 된 정신적 공허는 개인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적 관계를 열망하게 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개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명랑』의 독자사교란에서 연애욕망은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한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에 통합되지도 않고, 그에 포섭되지도 않았다. 그 균형점이었던 '누나'의 호명은 50년대 시대정신의 일단을 대중문화가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 지점이다. 식민지 시기 근대적 개인주체가 형성되면서 '오빠'의 탄생을 마주했듯이⁴²⁾ 전후 개인주체들은 '누나'의 출현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누나'들은 남성주체에 의해 호명되는 타자였으며, 60년대 이후에는 근대화를 짊어지고, 가족을 뒷받침하는 현실 속 누나들의 고단한 풍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누나'를 출현시켰던 대중잡지 『명랑』의 독자사교란은 60년대 초반 해외 확장이 활발했던 시대변화에 따라 독자사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68년 후반부터는 『선데이서울』, 『주간경향』 등이 창간되면서 소위 '펜팔'의 전성시대를 맞이한다. 『명랑』 또한 50년대 독자사교란의 대표격이었던 『애독자살롱』이 분화하면서 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며 '해외

41) 고선희, 『김내성 연애소설과 전후의 망탈리테』,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305-306쪽.

42)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42-75쪽.

펜팔이 등장하는 새로운 면모가 나타난다. 이 글은 대중잡지에 개인관계 서사가 드러나는 시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후의 변모양상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명랑』 1956. 10 / 1956.11 / 1956.12 / 1957.1 / 1957.2 / 1957.3 / 1958.3 / 1958.4 / 1958.5 / 1958.6 / 1958.7 / 1958.8 / 1959.1 / 1959.2 / 1959.3 / 1959.4 / 1959.5 / 1959.6 / 1959.7 / 1959.8 / 1959.9 / 1959.10 / 1959.11 / 1959.12 / 1960.1. / 1960.2. / 1960.3. / 1960.4.

2. 논문과 단행본

-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18집, 2006.10, 107-136쪽.
- 권두현, 「전후 미디어 스키프와 공통감각으로서의 교양-취미오락지 『명랑』에 대한 물질 공간론적 접근」, 『한국문학연구』 44, 2013.6, 7-45쪽.
-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상’과 ‘연애’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2012.12, 173-206쪽
- 김지영,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사랑의 인식구조-1950년대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8, 2013, 159-207쪽.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12, 387-416쪽.
-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호, 2013, 83-116쪽.
-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 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2012, 173-206쪽.
-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345-375쪽.
- 박성환, 「근대 사회의 분화와 ‘사교’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 사회』 13, 2012, 187-220쪽.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30, 2010, 397-454쪽.
-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511-570쪽.
-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 2011, 335-387쪽.
- 최애순, 「1950년대 활자매체 『명랑』 스토리의 공유성과 명랑공동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9집, 2013.6, 241-262쪽.

- 권보드래 외, 『아프레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사상계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 이영미 외, 『정비석 연구』, 소명출판, 2013.

Abstract

An Epic on the Post-War Individual Relationships from the Viewpoint of the Pop Magazine *Myeongrang*

Kim, Yeon-Sook(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pic of individual relationships emerg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50s, as shown in the Reader Socialization Section of the pop magazine *Myeongrang*. The 1950s saw individual readers forming personal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hrough the pop magazines. This study, targeting the period of the launching of *Myeongrang* in 1956 to April 19 Revolution in 1960, examined the Reader Socialization Section and relevant news articles.

Myeongrang's Reader Socialization Section was presented in diverse names such as Readers' Correspondence, *Myeongrang* Correspondence and *Myeongrang* Favorite Reader Salon. The major readership covered late teens to early 20s. In particular, Reader Socialization Section featured the desire for establishing a family. This is understood to try to restore the collapsed family relationship in the wake of Korean War, as well as to secure an alternative family if such family restoration is impossible. A member family, emerging the most frequently, was Nuna ("sister").

The so frequently emerged name of sister in the Reader Socialization Section suggests the following. The atmosphere of the time of 1950s showed the ambivalent attitudes about love. Love was emphasized as individuals' voluntary desire, and as part of the national project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destroyed country. Thus, spiritual love took the helm of the times, and the Reader Socialization Section of *Myeongrang* objectified love through the name of sister. Thus, the socialization section, which ran the love affairs of males and females, could allow them to freely express and share their desires, and yet to maintain their secret area within the limit of governing ideology. As a safety mechanism, the calling of sister projected the readers' desires, reproduced those desires, and allowed the writing of those desires on the public publication, and of such socializing activities.

(Key Words: Pop magazine, 1950s, *Myeongrang*(『명랑』) individuals' relationship, readers' socialization, love, sister, individual entity, desire for love)

논문투고일 : 2016년 4월 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 2016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14일